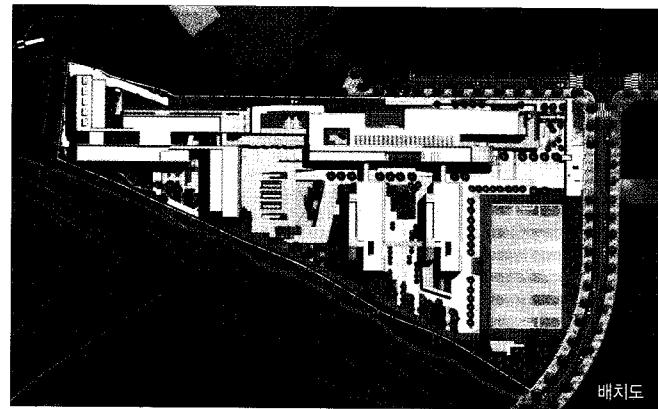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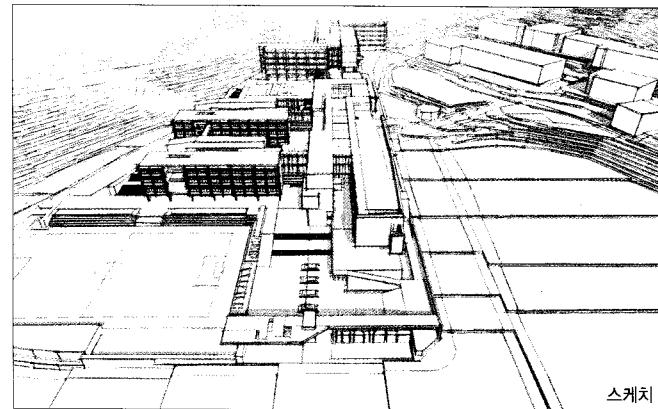
인천 하늘고등학교

Incheon Haneul School

이용선 / 정희원,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선기획
by Lee, Yong-sun, KIRA



배지도



스케치

대지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570번지
지역/지구: 인천강제지은구역 영종하늘도시
주요용도: 교육연수시설 (고등학교)

대지면적: 30,757.00m²

건축면적: 11,709.85m²

연면적: 32,664.68m²

건폐율: 38.07%

용적률: 78.53%

구조: 지하 1층, 지상 5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철골조

외부마감: 입출성형시멘트페인트, 티타늄아연판
THK24로이포충우리, 고밀도로재페인트
석면돌지장열기

구조설계: 바른구조

전기설계: 삼우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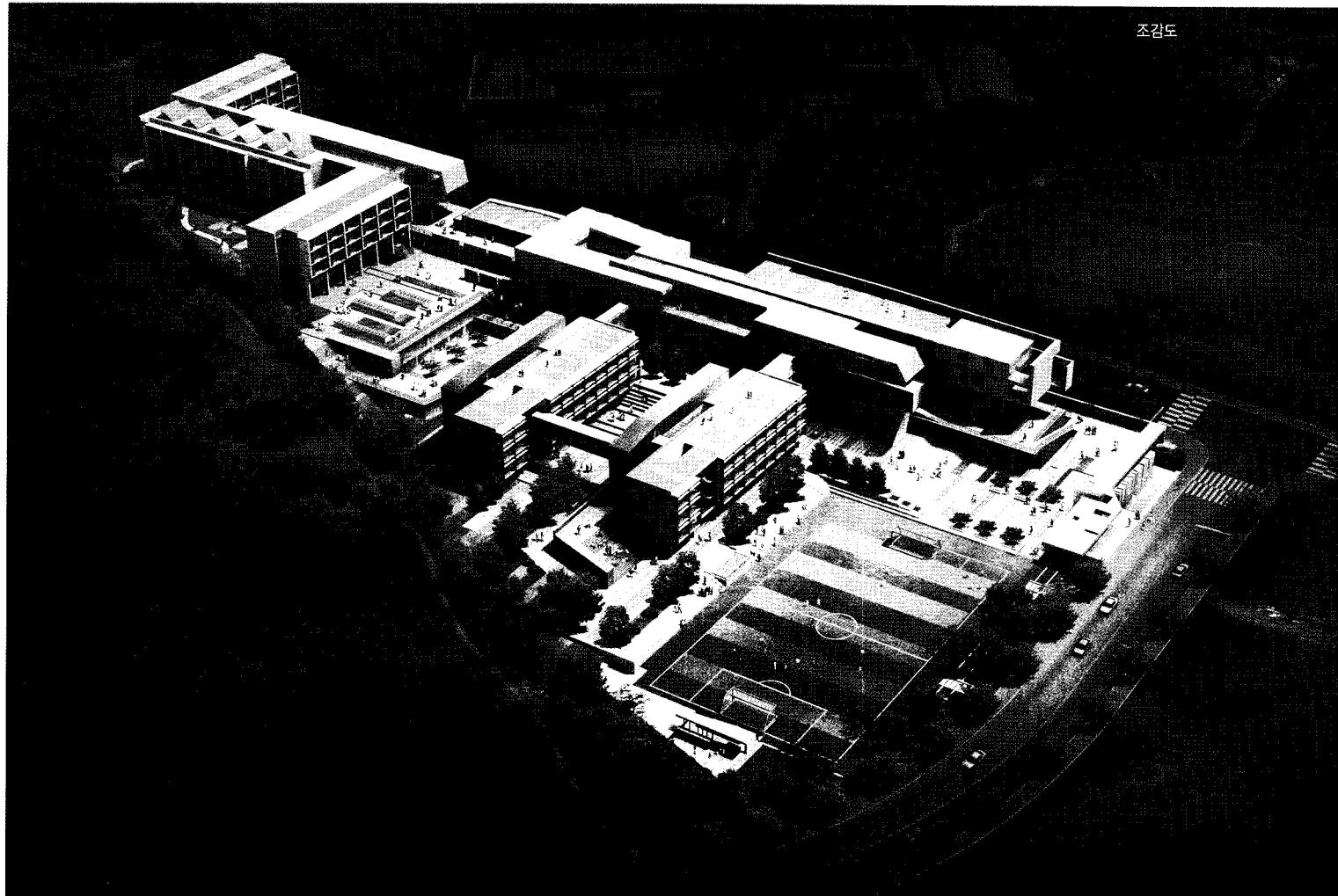
기계설계: 삼우설비건설린트

건축주: 인천중늘교육재단

설계담당: 이용민, 정석녀, 황승현, 장현미, 정은실,

류현미, 소현수, 김민성, 심용재, 남해민

오재민, 이용권, 이자연, 이동희



조감도

'자연의 가르침'의 교육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교육은 늘 논란이 되어왔지만, 우리나라의 가장 큰 역량 또한 교육에서 나온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70~80년대의 학교 교육은 혼란스러웠다. 많은 수의 학생과 규율화된 제도는 학생들의 창의보다는 일정 교육수준의 달성이 목적이었다. 하지만, 현재의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학교 또한 변화를 요구받았다. 그 변화의 요구에 2009년 정부는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를 추진했고, 그 계획의 하나로 자율형사립고(자율고)를 추진했다. 자율형사립고는 고교 다양화, 수월성 교육 확대 등의 측면에서 앞으로의 세대에게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학교는 학생 본연의 창의성을 실현시키며, 교육에 의한 교육뿐만 아니라 자연 속에서 그들 스스로 그들의 '꿈'을 발견하고 진화하는 학교이다. Site는 전면을 제외한 나머지 3면은 백운산과 녹지로 둘러싸인 쾌적하고 아름다운 곳이었다. 대지가 가지고 있는 활기찬 공간은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인간과 자연'의 이미지를 떠올리기에 충분하였다. 그 교류의 장으로서 자연이 함께하는 감성공간은 어찌 보면 필연적이었다. 그러한 공간들의 존재는 우리를 소통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게 하는 교육이었다. 계획의 가장 큰 숙제는 대지에 우리가 생각하는 소통의 공간을 삽입하는 일이었다. 교육공간과 매개공간, 생활공간으로 이어지는 흐름 속에서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는 공간, 함께 어울리고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을 사용자들에게 제공해 주고자 하였다.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의 생각의 발로는 지금과는 다른 교육환경을 제공해 주자는 것이다. 그 교육환경은 그저 좋은 시설과 우수한 기자재만을 제공하자는

것은 아닐 것이다. 교육으로서의 교육뿐만이 아니라 학교라는 공간에서 생성되는 흐름과 그 흐름의 우연성에서 발생하는 이벤트, 그 이벤트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 자연으로부터 배움을 얻을 수 있는 공간의 제공도 큰 의미에서는 포함될 것이다. 그 속에서 얻는 깨달음이 교육 속에서 얻는 배움보다 더 큰 가르침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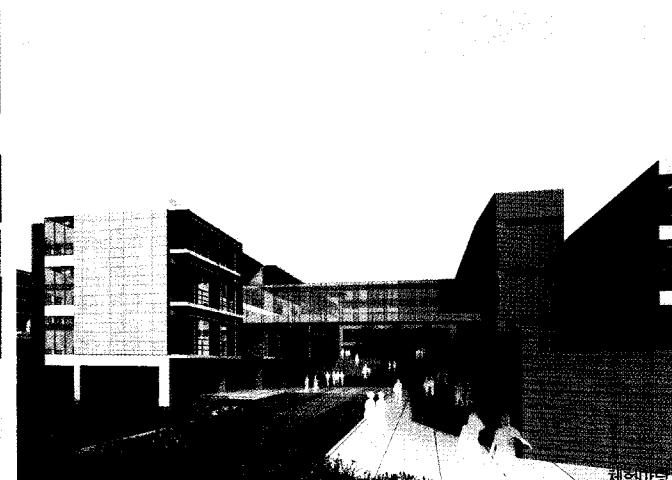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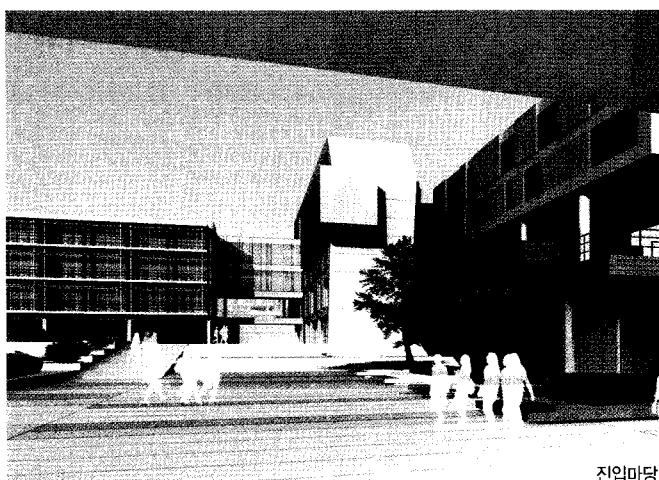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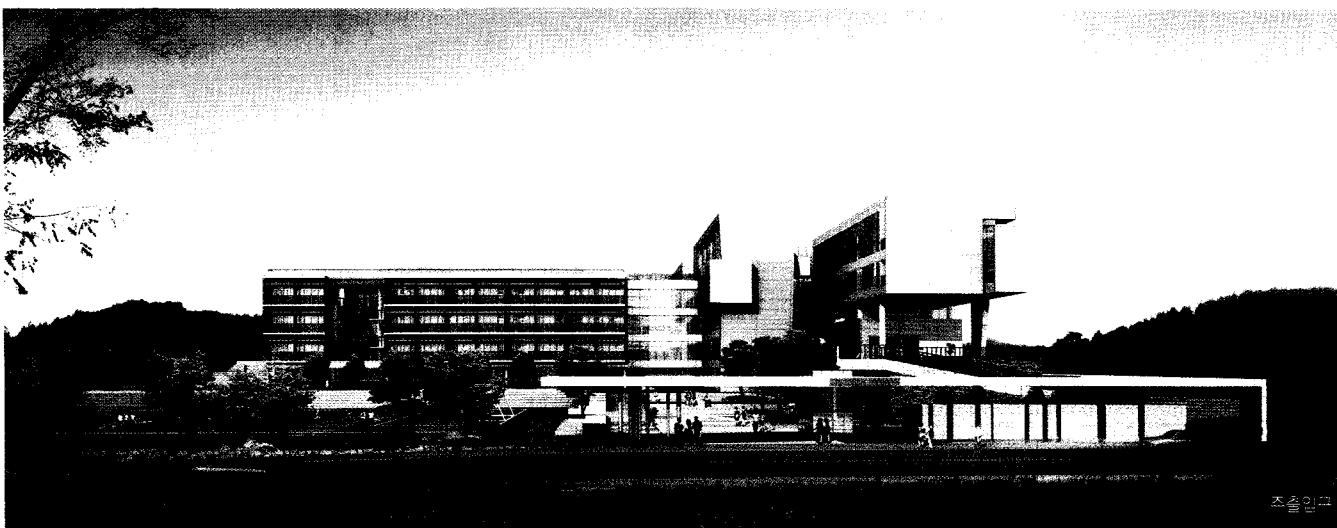
자연경관과 지형이용_기존 자연 경관의 변형을 최소화하는 배치와 매스의 형태 그리고 지형의 이용을 고려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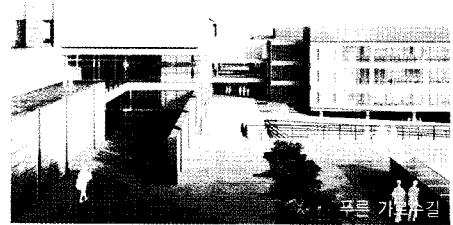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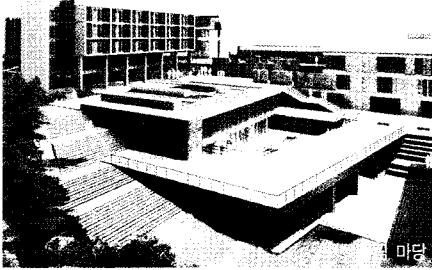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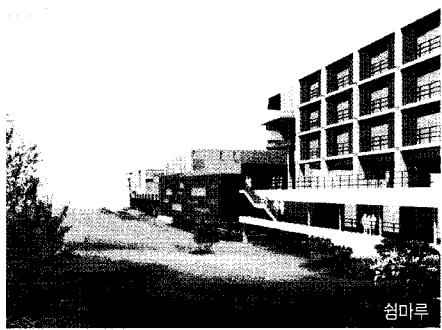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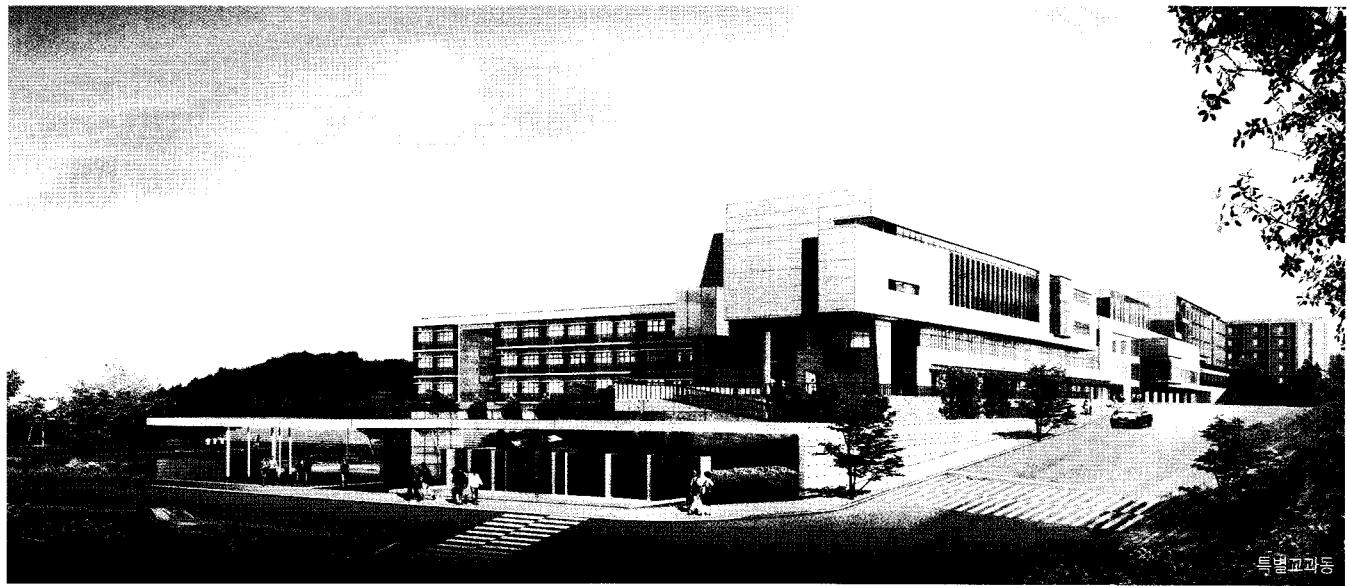
입지현황_부지는 서쪽으로 공항신도시와 연계되어 있으며, 동쪽에는 인천교육연수원과 공공청사 예정부지가 인접해있다.

배치_남북으로 뻗은 특별교사동과 관리영역의 형태는 일반교육과정을 담당할 영역과 학생들과 교사 및 관리자의 효율적인 시설 이용을 높이기 위함이다. 교사 진입부에서 뒤편으로 이어지는 산세에 순응하며 도시경관의 일부로써 학생은 물론 주민의 공공적 편의를 위해 기능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세부공간과 오픈스페이스_진입마당을 시작으로 교사동, 체육관, 식당, 기숙사 등 의 각 시설을 잇는 가로수길을 중심축으로 하는 외부동선과 지형을 따르는 레벨이 다른 데크들을 영역간의 다양한 연계가 가능하게 배치하여 사용자의 이동편의와 자칫 폐쇄적이기 쉬운 교사공간의 쉼터로써 편안한 교육일상을 만들고자 하였다.

친환경_향과 빛의 유입을 고려한 매스의 분리, 기존 토양과 식생을 최대한 유지하고 활용하여 자연 친화적인 계획을 실현하고자 하였으며, 친환경 시스템 기술로는 지열, 태양열 등의 신재생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제로에너지 개념에 근접하도록 계획하였다. ■





지하 1층 평면도

1층 평면도

기숙사 1층 평면도

